

光銀 행장 ‘낙하산’ 아닌 ‘내부승진자’ 선임

5명 압축... 조억헌·김장학 유력후보 거론 지역경제계·노조 “지역민 대변 인물돼야”

광주은행 새 행장 내정자가 이달 안에 정해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주은행 민영화에 최적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광주은행 민영화가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될 경우 광주은행을 비롯한 지역정치권·상공인,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내부승진자’ 선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광주은행부

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서류 심사를 통해 12명 가운데 조억헌 광주은행 부행장 등 5명을 후보로 압축했다. 광주은행 출신은 조억헌 광주은행 부행장, 변정섭 전 부행장, 최영하 전 상무 등이며 외부인사로 김장학 우리금융 부사장과 최승남 전 우리금융 부사장 등이다. 행추위는 화요일에 이들 5명에 대한 면접을 치르고 2명을 압축, 내정자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에서는 조억헌 광주은행 부

행장과 김장학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이 경합을 통해 광주은행 새 행장 선임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광주은행 부리매각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광주은행 새 행장 선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학 우리금융 부사장은 정부 및 우리금융과 원만하게 교감할 수 있는 인물로 광주은행 새 행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은행 노동조합을 비롯한 광주지역 정치권, 경제계, 상공인, 시민단체 등은 광주은행 민영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광주은행을 잘주소그리고 ▲지역여론의 설득과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광주은행 ‘내부승진자’ 선임을 줄

곧 주장해 왔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광주은행 새 행장 선임은 민영화에 누가 더 최적인물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광주은행 임직원의 총의를 모아서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대해 지역민을 설득하고 조정할 수 있는 내부승진자가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공인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민영화와 새 행장 선임에 ‘낙하산 인사’까지 강행될 경우 지역여론의 강한 반발이 부딪치게 될 것이다”며 “지난 45년 동안 단 한차례도 광주은행 출신 행장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부도 지역여론을 감안해 지역여론을 잘 아는 내부승진자 선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시의회·경남도의회 “광주·경남은행 지역환원 협력”

광주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향후 은행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조오섭(민·북구 2) 운영위원장은 지난 19일 경남도의회를 방문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의회는 이 자리에서 최근 매각

공고된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에 대한 지역 우선 협상권 보장의 당위성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협력활동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해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6월에도 건의문을 채택해 광주은행 매각시 지역에 우선 협상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

했었다. 조 위원장은 “지역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5일 광주·경남은행 매각 공고에 우선 협상권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배제돼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며 “두 지역 은행의 지역환원을 위해 양 의회가 힘을 합쳐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은행 민영화 지원 TF 발족

KJB광주은행이 성공적인 민영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일 ‘광주은행 민영화 전담지원 기획단(TF)’을 발족했다.

민영화 지원 기획단은 부리매각과 관련한 회계실사 지원을 포함, 정부의 지방은행 부리매각 일정에 맞춰 경영기획본부장을 팀장으로 한 재무·회계·법률분야의 직원 및 전문가들이 팀원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정부의 지방은행 부리매각 일정에 맞춰 신속한 매각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광주은행이 효율적인 민영화 과정과 부리매각에 따른 제반 현안사항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민영화 지원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주유소·골프연습장·찜질방... 불황 여파 경매 물건 쏟아진다

대부분 생계형

장기 불황 여파로 주유소, 골프연습장, 찜질방 등 생계형 물건들이 잇달아 경매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에서 경매로 넘어간 주유소 등 14개 특수유형 물건 수는 17일 현재 154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경매에 가장 많이 나온 물건은 주유소로, 총 604건에 이른다. 정비소 등 자동차시설도 309건이나 경매로 넘어갔고 병원 등 의료시설은 같은 기간 120건이나 경매시장을 찾았다.

올해 전국에서 경매로 넘어간 특수유형 물건은 현재까지 총 254건으로 작년 연간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경매로 넘어간 골프연습장은 총 8건으로 작년 연간 9건과 맞먹었다. 전국에서 새로 경매시장에 나온 주유소는 117건으로 작년 196건의 60%에 달했고, 정비소 등 자동차시설도 현재까지 작년 연

간(111건)의 절반이 넘는 62곳이 경매로 넘어갔다.

올해 현재까지 노인복지시설 20건, 의료시설 15건, 어린이집 8건, 고시원 4건, 예식장 4건, 학원 4건 등도 줄줄이 경매로 넘어갔다.

부동산대인은 경매로 넘어간 주유소 등 14개 특수물건은 ▲2010년 322건 ▲2011년 379건 ▲2012년 591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내수 경기 부진은 경제 성장을 둔화하고 함께 부동산시장 침체, 고령화, 청년 취업난 등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분석된다.

또 점차 커지는 주택 비용 부담으로 인한 소득감소도 소비 부진 요인으로 꼽혔다. 하우스푸어(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뿐 아니라 렌트푸어(주택임대 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마저 대출이자 부담에 짓눌려 소비를 줄이자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생활고에 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연합뉴스

멘토에 갈증나고 힐링에 목마르는 시대!

명랑 해결단

그들을 위한 명쾌한 정답 프로그램!

매주 월요일 밤 11시

이운석, 이유리, 서경석

CHANNEL A www.ichannelA.com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 A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하이트진로 봉사단 8기 발대식. 하이트진로(주)(대표 김인규)가 운영하는 '하이트진로 나눔 참여 봉사단'은 18일 라블웨딩홀에서 광주지역 주요대학 남·여학생 60여명으로 구성된 7기 단원들의 봉사활동 수료식과 새롭게 남·여 학생 60여명으로 구성된 8기 단원들의 발대식을 가졌다. (하이트진로 제공)

금호산업, 3300억 규모 평택 용이동 아파트 수주

금호산업은 지난 18일 군인공제회로부터 3313억원 규모의 평택시 용이동 아파트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수주금액은 지난해 금호산업 매출의 22.1%에 달하는 규모다. 공사는 이달 말부터 오는 2015년 10월까지 진행된다.

수주 소식이 알려지면서 금호산업은 주식시장에서 19일 전일 대비 14.96%(1750원) 오른 1만3450원을 기록하며 사흘 연속 하락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임동률기자 exian@

전남신보 이사장 공모

전남도는 제5대 전남신보보증재단 이사장을 공모한다.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하며 응모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자격증 및 학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전남신보보증재단 홈페이지(www.jnsinbo.or.kr)에서 응모서를 내려받아 경영기획팀에 내면 된다. 임기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문의 061-729-0612. /오광록기자 kroh@

운암동 롯데마트 입점저지 ‘동전 퍼포먼스’

광주 운암동 대형마트 입점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정현호·이하 대책위)가 지난 20일 광주시 광산구 운암동 롯데마트 점단점에서 ‘롯데마트 이제 그만! 동전계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10원짜리 동전 20만개(200만원)로 구매할 물품을 계산하는 동전 계산 시위는 1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추가 출점을 강행하는 롯데마트에 항의하는 의미로 진행됐다.

대책위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무너뜨리고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일은 더 이상 안된다”며 “최

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외면하고 이윤 극대화에만 매달리는 롯데의 부도덕한 탐욕을 소비자들에게 알려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광주 내 롯데마트 지점을 돌며 항의 퍼포먼스를 할 계획이다.

한편 롯데쇼핑은 광주에 롯데마트 4곳, 기업형슈퍼마켓(SSM·가맹점 포함) 13곳, 상품공급점(개점예정소 포함) 3곳, 아웃렛 2곳을 운영 중이며 최근 북구 운암동과 신용동에 각각 대형마트와 초고형 할인점 입점을 추진 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얼굴

“신뢰받는 통계로 지역발전 이바지”

백만기 호남지방통계청장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8년 예전매칭 전주전매지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통계청 재정기획관실, 성과관리담당관, 부산·울산지방통계청장, 통계청 제국민에게 신뢰받는 통계청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소 국가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백 청장은 2009년 2월 광주·전남, 전북, 제주 등 통합 이후 네 번째 지방청장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로도복권 (제555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1 17 21 24 26 36	1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711,027,360	8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9,594,996	46
3	5개 숫자 일치 1,468,063	1,554
4	4개 숫자 일치 50,000	78,046
5	3개 숫자 일치 5,000	1,296,730